

심낭막절제술(pericardiectomy)의 적용 3례

이선태, 변예은, 채호철, 장병준, 권오경, 김완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서 론: 재발성 심낭삼출액 (pericardial effusion)과 심낭협착 (constriction)이 있는 3례에 대하여 심낭막 절제술을 적용하였다.

재료, 방법 및 결과: 증례 1은 14년령의 잡종 수컷 개로, 기침과 호흡곤란, 식욕부진, 복수의 증상을 보였으며, 심낭삼출액이 관찰되었다. 이는 혈액성 누출액으로 확인되었으며 약물치치에 반응이 없어, 지속적인 천자를 실시하였다. 수술적 접근 시 심낭과 심장의 유착이 확인되어 부분심낭막절제술을 적용하였다. 술후 3개월이 지난 현재 이노제 처치와 함께 증상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절제한 심낭의 조직병리검사 결과 심낭막중피종(pericardial mesothelioma)으로 확인되었다.

증례 2는 10년령 말티즈 종의 수컷 개로 호흡곤란과 기침, 복수의 증상을 보였다. 반복되는 천자와 약물치치에도 지속적인 심낭 삼출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혈액성 누출액으로 확인되었다. 본 환자는 준완전 심낭막 절제술(subtotal pericardiectomy) 후 2개월까지 흉수 등 복합증 없이 증상이 개선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증례 3은 7년령 잡종 암컷 고양이로 심한 호흡곤란을 보였으며, 유미흉과 기흉이 확인되었다. 개흉 시 유미흉으로 인한 심낭의 염증성 비대와 협착이 확인되어 심낭막 절제술을 실시하고 파열된 폐엽을 봉합폐쇄한 후 흉관을 장착하였다. 술후 고양이는 호흡의 개선을 보였으나, 술후 2일째에 심장정지로 폐사하였다.

임상적 의의: 심낭막 절제술은 심낭삼출액이나 심낭협착이 있는 경우 진단, 증상완화, 치료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법으로 사료된다.

*Corresponding author: whkim@snu.ac.kr